

韓國俗談에 나타나는 韓國人의 衣服態度에 관한 研究

金 鎮 玖

漢陽大學校 衣類學科 教授

A Study on the Attitudes on the Clothing of the Korean People Implied in the Korean Proverb

Jin Goo Kim

Professor,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yang University

目 次

Abstract	IV. 化粧 衣服治裝에 대한 態度
I. 緒論	V. 結論
II. 衣服과 外貌에 대한 態度	參考文獻
III. 衣冠 整齊에 대한 態度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attitudes on clothing of the Korean people implied in the Korean proverb.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is research was as follows :

It was found that the Koreans regarded clothing and personal appearance as important matter in their everyday life. Th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wearing clothes and personal appearance was usual matter to the Koreans. Thus they put a great value on good and appropriate clothing behavior and personal appearance.

The Koreans understood the meaning of clothes make the man and they knew how to use the clothing and personal appearance to relate people in the social order. They showed a tendency to treat a person in terms of his appearance. It seems that since the Koreans knew the importance of clothing and personal appear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 and person they emphasized appropriate clothing behavior and decency.

I. 緒 論

우리나라 속담에는 복식 관련 속담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이는 속담의 내용이 민중들의 일상적이고 신변잡기의 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속담은 대중적이며 속담의 짧은 한 마디는 그 민족과 사회의 오랜 경험과 지혜를 단적으로 반영하는 문화적 소산인 동시에 민족 고유의 생활표현이다.

우리들은 옷에 대하여 어떤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우리나라 속담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속담은 만들어지기 시작한 그시대의 특성을 반영하고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같은 것이 시대가 흐르면서 다르게 사용되기도 하고, 옛 것이 소멸되고 새로운 것이 생겨나기도 한다. 속담은 시대와 사회의 변천에 따른 시대상과 사회상을 반영하고 인간심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민족과 사회에 따라 각기 다른 것도 있고 공통적인 것도 발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들은 옷에 대하여 어떤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어떤 가치를 부여했는지 우리나라 속담을 중심으로 위의 것들을 찾아보려고 한다. 민중들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속담에서 우리들의 옷에 대한 태도, 생각, 가치관 등을 찾는다는 것은 흥미롭고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속담의 표현에는 복식어휘가 많이 사용되어 왔다. 이것에 대한 연구는 필자의 선행연구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복식어휘의 사용빈도와 의미 등은 제외되었다.

II. 衣服과 外貌에 대한 態度

우리 속담에는 衣服이나 外貌의 態度에 관한 것들을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들은 아래와 같다.

1. 衣服에 대한 態度

- 옷이 날개라.
- 사람은 옷이 날개라.
- 衣服이 날개라.
- 옷이 날개요 밥이 분(粉)이다.
- 잘 입고 잘 먹어 못난 놈 없다.
- 잘 먹고 잘 입어 못난 놈 없다.
- 잘 입어 못난 놈 없고 못 입어 잘 난 놈 없다.
- 못 입어 잘 난 놈 없고 잘 먹어 못난 놈 없다.
- 못 입어 잘 난 놈 없고 잘 입어 못난 놈 없다.
- 못 입은 잘 난 놈 없고 잘 입은 못난 놈 없다.
- 입은 거지는 얼어 퍅어도 벗은 거지는 못얼어 먹는다.

- 하루 굶은 것은 몰라도 헐벗은 것은 안다.
- 못난 놈 잡아들이라면 없는 놈 잡아간다.
- 미련한 놈 잡아들이라 하면 가난한 놈 잡아들인다.
- 옷 잘 입고 미운 사람 없고 옷 헐 벗고 이쁜 사람 없다.
- 등 따지면 배부르다.
옷을 잘 입고 있는 사람이면 배도 부른 사람이라는 뜻.
- 옷은 새옷이 좋고 님은 옛님이 좋다.
- 옷은 새옷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 옷은 새옷이 좋고 친구는 옛친구가 좋다.
- 사람은 현사람이 좋고 옷은 새옷이 좋다.
- 사람은 때묻은 사람이 좋고 옷은 새옷이 좋다.
- 현 것이 있어야 새옷이 있다.
- 비단 옷 입고 고향 간다.
- 금의환향(錦衣還鄉)

옷이 날개, 의복이 날개란 속담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西洋 속담에도 옷이 날개라는 의미의 속담이 있다.

- Clothes make the man.
- The coat makes the man.
- Fine feathers make fine birds.
- Nine tailors make a man.

이와 같은 속담들은 인간 깊은 곳의 공통적인 심리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에 예시된 우리 속담 가운데 잘 먹고, 잘 입으면 잘 나 보인다는 것, 먹는 것과 입는 것을 대비 시켰을 때 입는 것을 강조하는 것 등은 우리들이 衣服을 얼마나 중시하고 外觀에 價値를 두는 민족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들이다.

또한, 위의 例에서 보면 우리가 새옷을 얼마나 좋아하는가도 잘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현 것이 있어야 새옷이 있다고도 하는 교훈적인 속담도 발견된다.

성공한 것의 비유에 의복이 사용된 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의환향(錦衣還鄉)이란 속담이다. 이 속담에서 보면 성공하면 錦衣를 입게 된다는 意味이기도 하고 錦衣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錦衣의 이러한 면을 잘 보여주는 속담에는 비단 옷 입고 밤길가기(錦衣夜行)가 있다. 애써 한 일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헛수고가 되었다는 것의 비유로 사용 되는 말이다.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간다면 보아줄 사람이 없다는 말은 비단옷은 남이 보여주는 낮에 입는 것이란 뜻도 내포하고 있다.

위의 두 속담은 좋은 옷은 자기 지위와 신분의 과시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 옷은 낮에 봐야 좋다는 비유는 다음 속담에도 보인다.

- 여자는 밤에 봐야 아름답고 옷은 낮에 봐야 아름답다.
- 옷은 낮에 봐야 아름답고 여자는 밤에 봐야 아름답다.

무엇이나 그 격(格)에 맞게 일을 계획하고 처리한다는 뜻의 속담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채 보고 옷 짓고, 꼴 보고 이름 짓는다.
(=A crab digs a hole conformable to its back)
- 체수 맞춰 옷 마른다.
- 체수 보고 옷 지으겠다고 척수 보아 옷 짓는다.
- 이불 깃 보아 발 뻗는다.
- 풀 보고 이름 짓는다.
- 나그네 모양보아 표주박에 밥을 주고, 주인의 모양 보아 손가락으로 밥 먹는다.
(見客容以剗饋飯 見主容以手喫飯)

위의 속담의 뜻은 누구든지 사람을 대접할 때는 그 사람의 용모와 차림새를 보아서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대접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속담들은 人間常情을 잘 보여 주는 속담이기도 하며 용모와 衣冠의 중요성을 볼 수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 속담들도 內包된 한가지 뜻은 「옷이 날개」라는 속담의 의미와 상통하는 것이다.

2. 외모의 가꿈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

외모의 가꿈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속담

- 석말뚝도 꾸미기 탓이라 = 집과 계집은 가꾸기 탓.
소를 잡아매는 말뚝도 잘 꾸미면 좋아 보인다 함이니, 못 생긴 사람도 잘 꾸며 놓으면 볼품 있다는 말.
- 집과 계집은 가꾸기 탓
- 집과 계집은 가꿀 탓이다.
- 계집과 집은 가꾸기 탓이다.
- 여자의 인물은 옷속에 감춰졌을 땀 모른다.
여자의 인물은 옷을 잘 입고 못 입는데 따라서 좌우된다는 뜻
- 머리를 고치면 얼굴도 달라진다.
머리모양을 바꾸면 얼굴 모습이 달라보이듯이 환경이 바뀌면 성격도 변하게 된다는 말이다.

꾸지람을 듣거나 벌을 받을 경우라도 이왕이면 德 있고 이름있는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 좋다고 할 때에 다음과 같은 속담이 있다.

- 뺨을 맞아도 은가락지 낀 손에 맞는 것이 좋다.
- 같은 값이면 은가락지 낀 손에 맞으랬다.

○ 옥을 들어도 당감투 쓴 놈한테 들어라.

위의 속담도 德 있고 이름 있는 사람은 손에 은가락지를 끼고 머리에는 당감투를 쓴 사람이다. 꾸지람을 듣거나 벌을 받아도 이왕이면 훌륭한 인격과 외모를 가진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도 衣冠과 外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속담이다.

3. 衣服의 기능과 관계되는 속담

○ 가림은 있어야 의복이라 한다.

이 속담은 가려야 할 데를 가려야 비로소 의복이라 할 수 있다 함이니, 제가 맡은 바 구실을 온전히 하여야만 그에 마땅한 대우를 받는다는 뜻이다.

이 속담은 의복의 기능을 간단 명료하게 정의해 주는 속담이다.

Ⅲ. 衣冠 整齊에 대한 態度

1. 옷매무새가 흐트러져 어지럽고 지저분한 것에 대한 것

- 미친년 속곳 갈래 같다.
- 미친년의 치마자락 같다.
- 미친년의 속곳 가랑이 빠지듯.
- 미친놈 바지 가랑이 같다.
- 낡은 바지에 ×나오듯 한다.
- 떨어진 잠방이에 ×튀어나오듯 한다.
- 개× 같은
- 개× 같은 衣冠이다.
- 고경림의 바지 같다.
- 기생 자릿 저고리
- 기생의 자리 저고리
- 俄兵의 長靴속 같다.
- 일진회의 맥고모자 같다.
- 平壤兵丁발싸개 같다.
- 저지 발싸개 같다.
- 唐채련 바지저고리
 唐채련-빛이 검고 윤기있는 中國나귀의 가죽
- 逆賊 대가리 같다.
- 모양이 개질량이라.
- 주먹 맞은 감투
- 가난한 상주 방갓대가리 같다.
- 양국대장의 兵符차듯
- 南北兵士의 활동개 차듯.

- 왜장녀(倭將女) 같다.
- 왜장녀나 養明月이나 똥똥개나
왜장녀 - 우리나라 가면극인 山耨劇에 나오는 女子.
- 굴뚝막은 덕석 같다.
- 김덕성의 中衣 밑

2. 衣服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外出할 때에 하는 말

- 南山골 딸각발이 = 南山골 샌님
- 南山골 샌님
- 南山골 샌님은 뒤지하고 담뱃대만 들면 나막신을 신고도 동대문까지 간다.
- 南山골 災殃童이 샌님

상놈이 양반을 욕하는 말로서 돈 없고 볼 데 없으면서도 양반유세만 하는 南山골 샌님을 비웃는 데서 나온 말이다.

옛날 서울 南山 밑에는 零落하고 官職도 없는 가난한 선비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비오는 날에 신는 나막신을 맑은 날에도 늘 딸각딸각하는 나막신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南山골 샌님, 南山골 딸각발이, 南山골 災殃童이 샌님이라 불렀다. 그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집에서 입고 있던 衣冠 그대로 날씨가 지나 마르나 나막신만 신고 다녔으므로 衣冠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외출할 때의 사람을 南山골 샌님은 뒤지하고 담뱃대만 들면 나막신을 신고도 동대문까지 간다고 말한다.

3. 格에 맞지 않는 일이나 지나친 치장을 한 것에 대한 것

- 갓 쓰고 구두 신기.
- 갓 쓰고 넥타이 (덴格).
- 갓 쓰고 넥타이 매기.
- 갓 쓰고 양복입은 것 같다.
- 갓 쓰고 자전거 탄다 (타기)
- 개 귀에 방울
- 개에게 號牌
- 쇠목에 방울이다.
- 개 뼈다귀 銀 올린다.
- 개 대가리에 冠
- 개 발에 은대장 신기는 격
- 개 발에 숫대갈
대갈 - 말굽에 편자를 신기는데 박는 징
- 개 발에 버선
- 개 발에 주석편자
- 개 발에 편자
- 개 발에 토신짝

- 양이 수파 쓴 것 같다.
- 도포 입고 논설(별기)
- 도포 입고 김매기
-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이다).
- 돼지 발톱에 봉숭아를 들인다.
- 돼지 발톱에 봉숭아 물 들인다.
- 돼지 우리에 주석 자물쇠
- 망건 쓰고 세수한다.
- 탕건(唐巾)쓰고 세수한다.
- 발가벗고 전통 찰까
- 벌거벗고 환도 차기
- 방림에 쇠자질
- 사모에 갓끈이다.
- 사모에 영자
- 색시 짚신에 구슬감기
- 색새 짚신에 구슬감기가 웬일인고?
- 석새 짚신에 구슬감기
- 잠방이에 다님 친 것 같다.
- 잠방이 입고 다님 친다.
- 속 저고리 벗고 은반지
- 단삼 벗고 은가락지 낀다.
- 적삼 벗고 은가락지 낀다.
- 꽃 벗고 은가락지 낀다.
- 짚신에 국화 그리기
- 짚신에 四君子 그린다.
- 짚신에 丁粉 칠하기
- 짚신 감발에 絲笠 쓰고 간다.
- 파리한 강아지 풍지 치레 하듯
- 할아버지 감투 손자 쓴 것 같다.
- 거적문에 금구슬
- 거적문에 파 돌찌귀
 파 돌찌귀-국화꽃 무늬 그린 돌 찌귀
- 거적문에 돌찌귀
- 피 벗고 돈 한 잎 찬다.
- 우리에 주석 자물쇠
- 가계기등에 立壽
- 부러진 칼자루에 옷칠하기
- 조리에 옷칠한다.

- 월(越)나라 잔나비 사모관대 한다.
- 갈잡은 개 갓쓰고 장보러 간다.

4. 外 節

본 바탕이 좋지 않은데다가 어울리지도 않게 지나친 걸치레를 하고 꾸미나 오히려 더 흉하다는 뜻 또는 속이 빈 사람일수록 그럴듯하게 걸치레만 한다는 뜻으로 다음과 같은 속담이 있다.

- 파리한 강아지 꿩치레 하듯
- 머리없는 녀석이 땡기치레 하겠다고 한다.
- 더벅머리 땡기치레 하듯
- 당나귀 귀치레
- 당나귀 × 치레
- 개 대가리에 冠
- 개 귀에 방울
- 개 목에 방울이라
- 쇠목에 방울 단다.
- 개 발에 낫대갈 = 개 발에 편자
대갈 - 말굽에 편자를 신기는데 박는 정
- 개 발에 편자

5. 단정치 못한 용모에 대하여

- (1) 머리를 빗지 않고 두어서 머리카락이 제멋대로 엉켜있다는 뜻으로
 - 덩덕새 대가리 같다(수평이 대가리)
 - 머리털이 헝클어져 막 쭈서 비빈 것 같다는 말
 - 머리가 쭈대강이 같이 흩어졌다.
 - 머리가 부엌방석 같다.
 - 머리가 귀신 같다.
- (2) 얼굴이 지저분한 것에 대하여
 - 찻 나들이를 한다.
- (3) 더러운 의복에 대한 말로
 - 굴뚝 막은 덕석 같다.
- (4) 남루한 ...
- (5) 초라한 ...

(6) 옷입은 맵시가 ...

(7) 남루(襤褸)한 옷을 치렁치렁하게 걸쳤다는 뜻으로
◦ 용문산(龍門山)안개 두르듯

(8) 초라한 모습에 대하여

- 풍지 빠진 핏이다.
- 풍지 빠진 새 같다.
- 털 뜯은 핏
- 뿔 뺀 쇠상(相)
- 털 벗은 솔개미
- 삼살개 뒷다리

(9) 옷입은 맵시가 두리병병함을 이르는 말로 다음과 같은 속담을 들 수 있다.

- 가지 봉탕이 같다.
- 군밤 등우리 같다.
- 두루 풍수리 같다.
- 절구통 같다.
- 드림통 같다.

IV. 化粧 衣服 治裝에 대한 態度

1. 화 장

- 야하게 화장하면 음란한 짓을 하게 된다.
- 여자의 화장은 남자를 위한 화장이다.
- 여자의 치장은 첫째가 머리고 둘째가 화장이고 셋째가 옷이다.
- 하루 머리를 세번 빗으면 구멍창녀 된다.(제주도)

(1) 멋 부리기를 좋아하는 것에 향한 경고

- ① 멋에 치어 충 서방질 한다.
 멋 부리기를 너무 좋아하다가 신세를 그르치기 쉽다는 말
- ② 옷은 깨끗한 것을 귀하게 여길 것이지 화려한 것을 중하게 여기지 말라.

(2) 아이들의 옷치레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속담을 발견할 수 있다.

- 아이치레 송장치레
 아이들에게 호사스런 옷을 입히는 것은 마치 송장에게 잘 입히는 것과 같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니 자라는 아이들은 아무렇게나 되는대로 입혀서 기르라는 뜻이다.
- 아이와 장독은 얼지 않는다.(=장독과 어린아이는 얼지 않는다)

장독은 임분이 있어 얼지 않고, 아이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옷을 입힐 뿐만 아니라 추위에도 뛰어다니며 놀기 때문에 얼지 않는다는 뜻.

위의 두 속담에서 보면 아이들의 옷은 지나치게 호사스럽게 입히지 말고 검소하게 입힐 것이며, 가난하여도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옷을 입힌다는 우리들의 어린이에 대한 태도도 엿볼 수 있다.

V. 結 論

우리나라 복식관련 속담 중에서 한국인의 의복에 대한 태도와 의식을 찾아내어 그것들을 분석하여 보려고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복과 외모에 대단한 가치를 두고 있었다. 의복과 외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었다. 「옷이 날개」라는 의미의 속담이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잘 입은 사람은 잘 난 사람, 부자, 지위가 높고 역망이 있고, 성공한 사람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은 사람을 대할 때는 그의 옷차림새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여 대할때의 높낮이를 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좋은 옷차림이나 외모 또는 청결하고 바른 옷차림은 다른 사람들로 부터 좋은 평판과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또한 한국인은 그것들을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복과 외모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솔직한 심리와 태도 등이 속담에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한국인은 옷을 잘 입는 것과 훌륭한 외모가 대인관계에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가치를 일찌기 알고 있었으므로 또한 그들은 衣冠整齊의 중요성에도 대단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러한 의관정제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가치관은 속담에서 그대로 반영되었다. 단정하고 바른 옷매무새, 깨끗한 용모, 청결성, 격에 맞는 옷차림과 외모, 의관을 바르게 갖추어 입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지나친 걸치레와 여인들의 지나친 화장, 어린 아이들의 지나친 치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며 경고를 하였다.

요약하면 한국인은 의복과 외모에 중요한 가치를 두었고, 외모와 옷차림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았던 것으로 나타나지만, 자기 처지와 신분, 때와 장소에 맞는 옷차림을 강조하고 결코 너무 사치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태도와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參 考 文 獻

1. 大經出版社 編輯部 編, 俗談辭典, 大經出版社, 1987.
2. 社會科學院 언어연구소 편, 朝鮮말대사전, 上, 下, 동광출판사.
3. 世和圖書出版 編集部 編, 英韓俗談 辭典, 世和, 1985.
4. 신기철 신용철 편, 우리말 큰사전 上, 下.
5. 송재선, 우리말 속담 큰 사전, 1983.
6. 송재선, 상말속담사전, 東文選, 1993.
7. 李基文 編, 俗談辭典, 一潮閣, 1962.
8. 한국토속문화 수집회 편, 속담, 격언, 수수께끼, 가야출판사, 1980.